

최근 세계 유연탄 동향 및 전망

권혁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서언

세계는 지금 자원위기와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자원이용을 효율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산업,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화 하는데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로 바야흐로 세계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녹색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적 흐름에 앞서 나가지 않고서는 일류 선진국가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을 이명박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바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녹색성장과 연계, 에너지안보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경쟁적 자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처럼 자원빈국은 그 여파가 더욱 크다. 유연탄은 석유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 중요성이 매우 큰 전략광물 중 하나이다. 발전용, 제철용, 산업용 등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어 향후 해법을 찾기 전까지는 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가격은 안정을 찾고 있지만 불과 1~2년전의 가격폭등 상황을 고려하면 유연탄 전망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사실 이러한 가격 움직임에 속수무책인 절박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유연탄의 전세계 시장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수급전망에 대해서 언

급해 본다.

2. 세계 유연탄 현황

가. 생산, 소비, 교역

2008년 기준(BP Statistical review) 세계 석탄 생산량은 3,324.9백만톤 중국, 미국, 인도, 호주, 러시아 등 상위 5개국에서 78%의 생산을 점유, 극심한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에서도 총소비량은 3,303.7백만톤이지만 주로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러시아 등 상위 5개국에서 약 75%를 점유 그 편중 현상이 극심하다. 특히, 전세계 연평균(2000~2008) 소비증가율은 7%대인 반면 브릭스 국가의 경우 15.0%대를 넘어서고 있어 평균보다 무려 2.1배나 높은 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편중된 세계 유연탄 시장에서 중국의 경우 수입물량이 급격하게 증가, 전세계 유연탄 가격 상승을 주도함으로써 세계 유연탄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지속적으로 수입물량을 확대한다면 세계 유연탄 시장은 교란되어 높은 수준의 가격은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공히 전망한다.

현재는 현물가격 기준 하향 추세의 가격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시황은 아니다. 즉, 다소 현물가격이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더라도 유럽 석탄시장에서 일시적 시장 쇼크에 의한 현상으로 보

기 때문이다. 즉, 주요 대량 구매처들의 계약방식의 변화, 즉, 선물 및 선도, 장기계약 방식에서 현물시장을 활용한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일시적 공급과잉 현상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한동안 하향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전세계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 등으로 유연탄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는 견해가 대부분이지만 당장 유연탄을 대체할 에너지가 마땅치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한동안 유연탄 소비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며 이로 인한 가격 상승 여지가 항상 남겨져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나. 세계 석탄 시장 전망

세계 에너지 전망 2006(IEO2006) 기준안에 따르면, 2003~2010년까지 석탄소비는 연평균 3.0% 증가, 2030년 106억톤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역적으로는 비OECD 국가들의 석탄소비 증가가 IEO 2006 전망범위에서 예상하는 세계 석탄소비 증가의 8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석탄은 세계 총에너지소비의 22%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67%가 전력생산용, 30%가 산업소비용, 나머지 3%가 가계 및 상업부문용이다.

2030년에는 세계 총에너지소비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이 27%로 증가할 것이며, 발전부문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세계 유연탄 시장에서 중국의 주도권은 더욱 높아져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 지역별 수요 전망

1) OECD 국가들

기준안에서는, OECD 국가들의 석탄소비 증가가 비교적 비슷한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2030년까지 전체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1.2% 증가, 2015년부터 2030년까지는 그보다 다소 높은 1.4%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본질적으로 석탄소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OECD 유럽과 일본을 제외한, 한국, 캐나다, 호주/뉴질랜드, 멕시코를 포함한 OECE 국가들에서는 석탄소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은 국제 석탄거래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 OECD 총석탄소비의 16%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 비OECD 국가들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 강세 및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해 비OECD 국가들의 석탄소비가 14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 교역

상당량의 석탄을 소비하는 국가들의 대부분은 자국에 석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때문에 세계 석탄 거래의 규모는 세계 석탄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추세이다. 향후,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압력의 영향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연료탄은 2030년 국제 석탄 거래량의 72%를 차지하며 거래의 주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 6대 석탄 수출국은 호주,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공, 콜롬비아, 미국이었다. 호주는 발전 및 산업용 모두에 적합한 고품위의 석탄 매장량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 전망에서 호주는 2030년까지 세계 최고의 석탄 수출국의 자리를 유지하고 인도네시아는 불변의 2위 자리를 고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호주와 인도네시아 모두 생산성 높은 광산 및 아시아 시장과의 근접성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중국은 내수 충족을 위해 수입을 증가시키면서도 여전히 일정량의 석탄을 수출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점차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로 인해 세계 석탄시장의 파장은 달라질 수 있다.

주로 중국의 석탄 수요 증가로 인해 연료탄과 원료탄의 수입 최대 증가 지역은 아시아로 예측되었다. 현재 석탄의 순수출국인 중국의 경우 2030년에는 수출량보다 수입량이 22백만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체 석탄 매장량이 부족한 일본은, 2004년

〈표-1〉 아시아시장 석탄 가격 일본-호주 계약가격, FOB

(U\$/mt)

구 분	용 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벤치마크가격	발전용	44.0	53.0	52.5	55.65	125.0	65.0

* 자료원 : AME

총수입량이 10백만톤 줄어들기는 했지만, 2030년에는 세계 최대의 석탄 수입국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2030년에도 여전히 소비하는 석탄의 대부분을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대만은 모두 화력발전용량 확장 계획 때문에 세계 연료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22%에서 2030년에는 2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의 석탄 수입량은 2004년부터 2030년까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에서 호주는 아시아 지역으로의 최대 연료탄 수출국으로 남아있다. 또한, 국제 석탄 거래에서 비교적 신참국인 베트남은 2030년까지 아시아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중국과의 근접성은 베트남의 석탄 수출량을 2004년 10백만톤에서 2030년 약 60백만톤까지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3) 가격 전망

2008년 기준 연료탄 가격은 125(U\$/mt)까지 올라 2007년 대비 두배를 넘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주춤, 지속적 하락세를 보이면서 65(U\$/mt)를 유지하고 있다.〈표-1〉)

이처럼 2008년도에 가격급등을 불러온 상승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아시아 국가들의 수입량 증가를 들 수 있다. 둘째, 중국의 수요증가로 인한 수출물량 축소다. 중국정부는 석탄수출 할당관리법 제정을 통한 석탄자원 통제강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항구사용료 및 철도요금 등 운송비용 상승이 가격상승을 불러일으켰다. 셋째, 호주 뉴캐슬(NewCastle)항 처

리용량 한계로 수출물량 확대에 제한요인이 발생하였다.

중기적으로 볼 때 연료탄의 현물 및 계약가격(실질 기준)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생산지역 탄광들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호주와 인도네시아, 남아공을 비롯한 주요 생산국들의 연료탄 수출 증가가 예상되면서 연료탄 가격 상승세를 상쇄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절약의 결과는 세계 에너지 수요 급증세가 완화되면서 가격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볼 때 연료탄 가격은 아시아 지역의 지속적인 수요증가로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석유 및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중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공급원을 점차 석탄 화력발전소로 옮겨가는 추세다. 여기에 2005년말부터 시작된 국제 운임 하락세가 호주와 인도네시아 연료탄에 대한 유럽 소비업체들의 수요 증가로 연계되어 연료탄 현물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3. 국내 석탄소비 현황 및 전망¹⁾

가. 현황

석탄소비는 1990년~2008년 기간 중 연평균 4.7%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년대비 10.7% 증가한 10,420만톤을 기록하였다. 유연탄 소비는 같은 기간 중 연평균 8.5%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무연탄은 연평균 3.1%로 감소하였다. 따라

1) KEEI 에너지수요전망(2008~2013) 참조, 2009. 6월

〈표-2〉 용도별 석탄소비 동향

(단위 : 천톤)

구 분	산 업 용		가 정 상 업 용		발 전 용	
1990	16,436	(5.1)	19,263	(-7.4)	7,706	(0.5)
1995	24,697	(5.5)	3,005	(-35.8)	16,650	(14.3)
2000	29,179	(7.4)	1,192	(6.7)	36,155	(17.2)
2001	30,301	(3.8)	1,230	(3.2)	39,291	(8.7)
2002	32,076	(5.9)	1,175	(-4.4)	42,701	(8.7)
2003	33,588	(4.7)	1,191	(1.3)	44,341	(3.8)
2004	32,863	(-2.2)	1,385	(16.3)	47,868	(8.0)
2005	32,606	(-0.8)	2,010	(45.1)	50,206	(4.9)
2006	32,945	(1.0)	2,327	(15.8)	52,555	(4.7)
2007	34,394	(4.4)	2,091	(-10.1)	57,643	(9.7)
2008	37,158	(8.0)	2,289	(9.5)	64,751	(12.3)

주)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서 석탄소비 중 유연탄의 소비 비중은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무연탄 소비의 급감으로 1990년 50.4%에서 2008년에는 90.1%로 대폭 상승하였다.

발전용 석탄은 1990년에는 전체 석탄소비의 17.8%를 차지하여 소비 비중이 가장 낮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상승하여 2008년에는 전체 석탄소비의 62.1%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가정·상업용의 소비 비중은 1990년에는 44.3%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에 2.2%로 낮아졌다. 산업용 소비 비중은 1990년 37.9%에서 1995년에 55.7%로 높아졌으나 이후 점차 낮아져 2008년에는 1990년 수준보다 낮은 35.7%로 축소되었다.(<표-2>)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유연탄은 발전연료 및 산업부문의 연료·원료로 사용되며, 1990년대의 산업성장과 전력 소비 급증에 따라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제철산업의 주 원재료인 선철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유연(원료)탄 소비는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주요 철강재 수요산업의 성장 및 철강제품 수출 성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1990년~2008년 기간 중 제철용 유연탄 소비는 연평균 4.1% 증가하였다.(<표-3>)

시멘트 생산용 유연탄 소비는 건설경기의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왔다. 1990년부터 1997년까지는 연평균 9.3%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외환위기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1998년에는 전년대비 23.9% 감소하였고, 이후에도 건설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2003년까지 완만한 증가세에 그쳤다. 2004년에는 건설경기 침체 및 국제 유연탄 가격 급등으로 소비가 12.4% 감소한 이후 2006년까지 감소세가 이어졌다.

2007년의 시멘트 생산용 유연탄 소비는 민자사업의 호조와 행복도시, 혁신도시 물량 일부 발주,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한 주택사업 조기추진 등의 영향으로 건설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2008년 들어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주로 산업단지의 열병합발전 연료로 사용되는 기타 산업용 유연탄 소비는 1990년 88만톤에서 연평균 6.0%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242만톤을 기록하였다. 특히 1990년대 후반까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이 확대되면서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후 기간에는 230~240만톤 사이의 수준에서 소비가 정체되었다.

〈표-3〉 용도별 유연탄 소비 동향

(단위 : 천톤)

	제 철		시멘트		기타산업		발 전		합 계	
1990	11,735	(5.1)	3,534	(5.2)	882	(23.2)	5,723	(9.5)	21,876	(6.9)
1995	16,305	(3.5)	5,590	(5.3)	1,965	(17.3)	14,229	(15.0)	38,089	(8.5)
2000	19,415	(5.3)	5,308	(4.7)	2,301	(-1.2)	33,305	(17.7)	60,329	(11.4)
2001	19,313	(-0.5)	5,474	(3.1)	2,297	(-0.2)	36,601	(9.9)	63,685	(5.6)
2002	20,097	(4.1)	5,669	(3.6)	2,356	(2.6)	40,143	(9.7)	68,265	(7.2)
2003	20,509	(2.0)	6,060	(6.9)	2,339	(-0.7)	41,631	(3.7)	70,539	(3.3)
2004	20,839	(1.6)	5,309	(-12.4)	2,318	(-0.9)	45,512	(9.3)	73,978	(4.9)
2005	20,810	(-0.1)	4,808	(-9.4)	2,320	(0.1)	47,852	(5.1)	75,788	(2.4)
2006	20,731	(-0.4)	4,738	(-1.5)	2,330	(0.5)	50,199	(4.9)	77,998	(2.9)
2007	21,519	(3.8)	5,051	(6.6)	2,374	(1.9)	55,487	(10.5)	84,430	(8.2)
2008p	23,568	(9.5)	5,236	(3.7)	2,388	(0.6)	62,791	(13.2)	93,983	(11.3)

주)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발전용 유연탄은 유연탄 화력발전소의 증설로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여 왔다. 1990년 572만톤에서 연평균 14.5%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7,064만톤을 소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전망

우리나라 석탄 수요는 2008~2013년 기간 동안 연평균 2.3%씩 늘어나 2013년에는 11,677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유연탄 수요는 전망기간 동

안 2.6%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며, 무연탄은 산업용 및 발전용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전망기간 중 연평균 -0.1%의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다. 총 석탄수요에서 유연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90.0%에서 2013년에는 91.1%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표-4〉

전체 석탄 수요를 공급원별로 살펴보면, 국내탄(발전용 무연탄 및 가정·산업용 무연탄) 수요는 2008~2013년 기간 중 연평균 0.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수입탄(전체 유연탄 및 산업용 무연

〈표-4〉 원별 석탄 수요 전망

(단위 : 천톤)

	2008p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변화율(%)
무연탄	10,215 (5.3)	9,518 (-6.8)	9,827 (3.2)	10,059 (2.4)	10,211 (1.5)	10,140 (-0.7)	-0.1
유연탄	93,983 (11.3)	98,383 (4.7)	101,323 (3.0)	103,370 (2.0)	105,075 (1.6)	106,625 (1.5)	2.6
합 계	104,198 (10.7)	107,901 (3.6)	111,150 (3.0)	113,430 (2.1)	115,287 (1.6)	116,765 (1.3)	2.3

주)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표-5〉 공급원별 석탄 수요 전망

(단위 : 천톤)

	2008p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변화율(%)
수입탄	99,949 (11.2)	103,984 (4.0)	107,165 (3.1)	109,353 (2.0)	111,123 (1.6)	112,702 (1.4)	2.4
국내탄	4,249 (0.05)	3,917 (-7.8)	3,985 (1.7)	4,077 (2.3)	4,164 (2.1)	4,063 (-2.4)	-0.8
합 계	104,198 (10.7)	107,901 (3.6)	111,150 (3.0)	113,430 (2.1)	115,287 (1.6)	116,765 (1.3)	2.3

주)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탄²⁾은 같은 기간 중 연평균 2.4%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탄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증가하던 가정·상업용 무연탄 수요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발전용 무연탄 수요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내탄의 비중은 2008년에 4.1%에서 2013년에는 3.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표-5〉)

전체 석탄 수요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발전연료용 석탄수요가 전망기간 중 연평균 2.3%씩 늘어나 수요 증가를 주도할 전망이며, 산업용 수요는 연평균 2.6% 증가할 전망이다. 가정·상업용 수요는 연평균 1.4%로 증가율이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석탄 수요 중 발전용 수요의 비중은 2008년 62.1%에서 2009년 64.6%까지 상승한 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61.9%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산업용 수요 비중은 2008년 35.7%에서 2009년 33.4%로 하락하나 현대제철 고로 가동에 따른 유연탄 수

요 증가로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36.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가정·상업용 수요는 2008년 2.2%에서 2013년 2.1%로 다소 정체될 전망이다.〈표-6〉)

용도별 유연탄 수요를 살펴보면, 제철용 유연탄 수요는 연평균 3.6%의 증가율을 보여 2008년 2,357만톤에서 2013년에는 2,798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³⁾

2011년부터 현대제철(주)의 일관제철소가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증가율이 2.7%로 상승할 전망이다.〈표-7〉)

시멘트용 유연탄 수요는 연평균 1.2%로 증가하여 2008년 524만톤에서 2013년에는 554만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2003년 이후 소비가 감소하던 시멘트용 유연탄 수요는 전망기간 중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으로 건설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⁴⁾

2) 산업용 무연탄에 소량의 국내탄이 포함되어 있으나, 국내탄, 수입탄을 구분하여 전망하지 않으며, 또한 국내탄의 양이 매우 적고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산업용 무연탄 전망을 수입탄으로 간주하였음.

3) 현대제철은 2010년초 고로1기 상업생산, 2011년초 고로2기 상업생산을 목표로 총연산 700만톤(최대 800만톤)의 일관제철소 건설을 추진중임. 제철용 유연탄 수요 전망을 위하여 2011년부터 현대제철의 일관제철소가 본격 가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4) 2008년에는 행복도시의 건설수주가 약 2조5천억원이 발주되어 전년대비 1.14조원이 증액되는 것을 포함,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본격 착공될 예정임. 행정부에서 국토균형개발 계획들을 상당부분 백지화하지 않는 이상 향후 2011년까지는 공공주도의 건설투자 증가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표-6> 용도별 석탄 수요 전망

(단위 : 천톤)

	2008p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변화율(%)
발전용	64,751	69,733	69,990	70,386	71,386	72,260	2.3
	(12.3)	(7.7)	(0.4)	(0.6)	(1.4)	(1.3)	
산업용	37,158	36,053	38,981	40,791	41,599	42,060	2.6
	(8.0)	(-3.0)	(8.1)	(4.6)	(2.0)	(1.1)	
가정상업용	2,289	2,116	2,179	2,252	2,341	2,444	1.4
	(9.5)	(-7.6)	(3.0)	(3.4)	(3.9)	(4.4)	
합 계	104,198	107,901	111,150	113,430	115,287	116,765	3.7
	(10.7)	(3.6)	(3.0)	(2.1)	(1.6)	(1.3)	

주)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주로 산업단지 열병합발전 연료로 사용되는 기타 산업용 유연탄 수요는 2008년 238만톤에서 연평균 0.7% 증가하여 2013년에는 246만톤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발전용 유연탄 수요는 2010년까지는 유연탄 화력 발전소의 건설이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망기간 중 2.4%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4. 시사점

지금까지 세계 유연탄 시장 및 국내 석탄 전망을 짚어본 결과, 현재 다소 가격이 안정세에 있더라도 중국이라는 영향력이 지배적인 세계 석탄 시장체제 하에서 유럽 등 선진국들은 나름대로의 대안 마련에 부심한 반면, 우리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화두가 본격화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을 찾

<표-7> 용도별 유연탄 수요 전망

(단위 : 천톤)

	2008p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변화율(%)
유연탄계	93,983	98,383	101,323	103,370	105,075	106,625	2.6
	(11.3)	(4.7)	(3.0)	(2.0)	(1.6)	(1.5)	
제 철	23,568	23,116	25,742	27,170	27,713	27,978	3.6
	(9.5)	(-1.9)	(11.4)	(5.5)	(2.0)	(1.0)	
시멘트	5,236	5,075	5,070	5,260	5,415	5,544	1.2
	(3.7)	(-3.1)	(-0.1)	(3.7)	(3.0)	(2.4)	
기타산업	2,388	2,260	2,328	2,379	2,423	2,462	0.7
	(0.6)	(-5.3)	(3.0)	(2.2)	(1.8)	(1.6)	
발 전	62,791	67,931	68,184	68,561	69,524	70,642	2.4
	(13.2)	(8.2)	(0.4)	(0.6)	(1.4)	(1.6)	

주)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을 수 없는 속수무책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앞에 나서 있는 석탄의존도의 축소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앞으로 유연탄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소비처들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 시멘트업계는 물론이고 발전업계에서도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면 유연탄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에도 발맞추어야 함은 물론이고 물량 확보 및 가격 변동에 따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목표 달성을 통한 안정적 공급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해외자원 개발에 있어 광산투자는 막대한 초기투자비, 투자회수기간의 장기성, 투자실패시 낮은 잔존가치와 환율리스크, 국가리스크 등 추가부담 요소들이 많아 민간 단독의 자발적인 투자가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자원개발을 통한 원료광물의 공급은

공익성이 큰 사업이므로 정보·기술·자금·유통 등 모든 부문에서 열세인 우리나라는 민간부문의 경쟁력 확보시까지 국가차원의 정보·기술지원으로 수익성 있는 투자기회를 충분히 발굴·제공하고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자금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실수요자 참여를 유도하여 판매리스크를 감소하는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

그 다음으로 수입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기존 호주, 중국 양국간의 의존도 심화에서 캐나다, 인니, 러시아, 남아공 등으로 수입대상국을 확대하여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기업간 역할 분담과 정보교류 확대를 통한 시장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업계간에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바겐파워 능력을 증진시키고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

시사 용어 해설

▶ 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GCC)

1979년 2월 이란혁명으로 인한 왕정 붕괴, 1979년 12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1980년 9월 이란과 이라크 사이의 전쟁 발발 등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걸프만 주변에서 발생한 정치적 불안에 대한 공동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 등 6개국 정상들이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 모여서 결성한 단체이다. 상호간의 경제 및 안전보장의 협력과 치안·국방면에서 결속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6개국은 석유의 생산·수출국일 뿐만 아니라 아랍어를 사용하고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며 세습왕정체제를 유지하는 동일 민족국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며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를 적대시 하는 이란의 반발이 심해지자 동맹국간의 보조가 흐트러져, 1982년 11월의 제3차 정상회담에서는 경제통합협정만을 조인하고 집단안전보장에 관한 결정은 유보하였다. 1983년 3월부터는 역내의 관세장벽 철폐, 여행제한의 해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1월 1일에는 공동시장을 출범시켰다. 6개국은 해마다 각국을 돌면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결성 이후 10년 동안 활동의 중심은 정치·군사적인 면보다는 경제협력에 있었다. 그러나 1991년의 걸프전쟁을 계기로 공동방위력의 증강 등 정치·군사적 협력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